

# 광주영화인을 기록하고 정책을 모색하다

## 소쇄원·흥도...남도의 자연, 유산이 되다

### 2017년 창립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조재형 채록집' '광주영화 보고서' 발간 광주독립영화관·광주극장서 무료 배포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최근 조재형 감독을 조명한 '내 친구 조재형'과 연구비평총서 등을 발간했다. 조 감독은 80년 5월을 다룬 영화 '그날'을 제작했으며, 지역의 독립영화 저변확대에 힘써왔다.

광주영화 도약을 위한 컨퍼런스, 광주씨네마클래스, 광주영화비평지 '신1980' 창간·발행, 광주영화학교 개설, 광주영화구술아카이브...

2017년 창립한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김지연)가 해온 활동들이다. 광주 시민이 영화·영상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이번에는 지역의 독립영화인, 광주영화인 현황, 지역영화 진흥 정책 등을 다룬 책으로 시민과 만났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최근 광주영화구술아카이브 '내 친구 조재형'과 연구비평총서 '광주영화·영상인 DB 연구 보고서', '광주 영상영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2종을 제작, 발간했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에게 광주 영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지역 영화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획했으며, 책은 현재 광주독립영화관과 광주극장에서 무료로 배포중이다.

'내 친구 조재형'은 지난해 12월 17~18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된 광주영화구술아카이브 씨네토크 '내 친구 조재형'의 현장을 녹취·채록해 제작했다.

광주영화구술아카이브는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광주의 영화를 수집·연구하고, 광주독립영화관의 주요 감독들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처음 시작했다.

책으로 기록된 첫 번째 주인공 조재형 감독은 광주출신으로 1980년대 후반 전남대 영상과 아리랑에서 활동하며 영상 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충무로에서 활동하며 영화제작집단 M16을 조직해 독립영화 제작활동에 매진하다가 광주로 내려와 지역 영화계 저변 확대에 힘썼다. 그의 대표작 '그날' (2008)은 광주의 80년 5월을 담은 작품으로 미장센단편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 등에서 주목 받았다.

이밖에 '중이비행기' (2005), '한 그릇 한 모금'



(2013), '삼포가는 길' (2015), '광인 : 맛의 기억' (2016) 등을 제작했다.

책에는 정영석(전남대 영상과 아리랑), 임은화(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윤수안(광주영화영상인연대 상임이사) 등 조 감독과 인연이 깊은 지인들의 구술채록문을 포함한 조 감독 작품 비평문, 언론 자료와 현장 기록 사진 등이 실렸다.

'광주영화·영상인 DB 연구 보고서'는 영화 장·제작 및 문화예술기획, 문화향유 분야에 종사하는 광주영화인의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연구는 2019년 위경혜 전남대 학

술연구 교수가 진행했으며, 광주시의 영화·영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광주영화인 수와 작품, 영화 문화 관련 단체 및 조직에 대한 정보는 향후 연구를 통해 지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광주 영상영화진흥 기본계획수립 기초연구'는 지역영화 진흥을 위한 정책목표와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아우른다.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역영화'와 '지역영화인'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작됐으며, 전병원 동의대 영화·트렌스 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 위경혜 전남대 학술연구 교수, 이상훈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선임 프로그래머, 정우영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정책이사가 참여했다.

책에는 "지역영화란 무엇인가?", "지역영상영화진흥 왜 필요한가?", "영화는 문화인가, 산업인가?" 등을 주제로 연구한 내용이 실렸으며, 부록에는 '광주영화운동에 관한 노트', '광주전남을 주제로 한 영화·영화인', '광주전남의 극장' 등이 담겼다. 마지막 장에는 '광주영화·영상인 DB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광주여성영화제에서 조사한 '광주영화 DB (2020년 12월 기준)'도 수록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자연유산·천연기념물 기획전 6월까지 목포자연사박물관

예로부터 명승은 역사와 예술, 자연경관의 가치가 큰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남도에는 담양 소쇄원을 비롯해 보길도 윤선도 원림 등 23건의 명승이 지정돼 있다. 아울러 천연기념물 동물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동고동락해온 자연유산이다. 남도에는 진도의 진도개를 비롯해 모두 6건의 동물, 도래지, 번식지가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남도 지역의 자연유산 자원과 천연기념물을 연계한 특별기획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과 목포시는 공동 특별기획전 '남도의 자연, 유산이 되다'를 오는 6월 30일까지 목포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천연기념물센터와 목포자연사박물관이 공동주최하며 천연기념물센터가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천연기념물 식물, 동물, 지질·광물) 중에서 서남해안 지역의 자연유산 자원을 최초로 외부에 선보이는 시간이다.

기획전은 모두 2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남도의 자연유산'에서는 서남해안 지역 명승과 천연기념물 대표유형(식물·동물·지질)을 소개한다.

먼저 '명승'에서는 전남 대표적인 명승인 보길도 윤선도 원림과 담양 소쇄원, 화순 임대정 원림과 강진 백운동 원림 등을 선보인다. 이어 천연기념물 '식물'은 강진·진도·고흥 등에서 지정된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 진도 관매도 후박나무,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의 사진과 동종의 어린나무를 전시한다.

천연기념물 '동물'은 목포 남향의 절새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해, 남도 일원에서 서식이 확인된 흑두루미·수달·독수리·황조롱이 등 8종의 동물 박제표본을 전시한다.

제2부 '목포의 자연유산'에서는 목포가 보유한 자연유산 자원을 소개한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목에 위치한 포구'라는 뜻으로 지어진 지명답게 목포에는 천혜의 자연유산이 산재한다. 천연기념물인 갯바위와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등지 화석이 있으며, 특히 기암괴석이 빚어내는 경관을 자랑하는 유달산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유산인 목포갯바위, 유달산,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등지 화석 등을 만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간 원림인 담양 소쇄원

# 뮤지컬 '광주' 다시 관객과 만난다

### 4월 13~25일 서울 LG아트센터 광주서는 5월 공연 예정

지난해 초연한 뮤지컬 '광주' (사진)가 다시 관객과 만난다. 광주문화재단은 뮤지컬 '광주'가 4월 13~25일 서울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르며, 광주에서는 5월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캐스팅도 공개했다.

뮤지컬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대상, 앙상블상, 안무상, 극본상, 음악상(작곡) 등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으며, 창작 부문 프로듀서상을 수상했다.

재공연되는 작품은 등장인물의 서사와 스토리, 음악 등을 대폭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대에는 13인조 오

케스트라가 등장하며 주연배우 민우혁·민영기·장은아·이보소리·박시원을 비롯해 9명이 합류해 완성도가 높아졌다. 새롭게 합류한 배우는 신우(B1A4)와 배우 김중구·최대철·임진아·안창용 등이다.

극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자 시민들의 틈에 잠입해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 특수부대 편대원 박한수 역에는 민우혁과 B1A4의 신우가 캐스팅됐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제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자 시민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아학교사 윤이건 역에는 민영기와 김중구가 출연한다.

황사음악사를 운영하는 교사이자 사려 깊게 학생들과 시민군을 돌보는 정화인 역에는 장은아가, 자신의 신념에 투철한 아학교사인 문수경 역에는 이보소리와 최지혜가 번갈아 무대에 오른다. 아울러 505특무대장으로 편의



대원을 지휘하는 허인규 역은 박시원과 최대철이, 천주교 사제인 오할사제 역은 이동준이 맡는다.

한편, '광주'는 광주문화재단의 '2019'를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라이브(주)와 극공작소 마방진이 공동제작한 작품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이벤트...예매권 할인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4월1일~5월9일) 개막을 20여 일 앞두고 온라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인스타그램에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의 행사기간'에 대한 정답을 댓글로 남기는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16일까지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코레일의 '내일로 바꾸자', 관람 티켓, 스타벅스 음료 교환권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광주비엔날레는 사전 예매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입장권판매대행기관인 티켓링크와 네이버 예매 서비스, 스마티스, 카카오톡 선물하

기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현장 판매 입장권 보다 30~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현장 판매는 어른 1만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이나, 사전 예매할 경우 어른 1만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전시 기간 동안 일일 관람객 수 제한 및 시간별 회차를 적용하며 방역 조치를 위해 매주 월요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휴관된다. 개관 시간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로 조정됐다. 국립광주박물관을 제외한 광주극장과 호랑가시나무아트플랫폼도 매주 월요일 휴관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담, 임야 등) 및 신용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주택담보대출</li> <li>주택담보대출</li> <li>신용대출</li> <li>신용대출</li> <li>신용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주택담보대출</li> <li>주택담보대출</li> <li>신용대출</li> <li>신용대출</li> <li>신용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주택담보대출</li> <li>주택담보대출</li> <li>신용대출</li> <li>신용대출</li> <li>신용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주택담보대출</li> <li>주택담보대출</li> <li>신용대출</li> <li>신용대출</li> <li>신용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주택담보대출</li> <li>주택담보대출</li> <li>신용대출</li> <li>신용대출</li> <li>신용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주택담보대출</li> <li>주택담보대출</li> <li>신용대출</li> <li>신용대출</li> <li>신용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주택담보대출</li> <li>주택담보대출</li> <li>신용대출</li> <li>신용대출</li> <li>신용대출</li> </ul>
--	--	--	--	--	--	--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